

경주 남산 長倉谷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과 禪觀 수행

裴宰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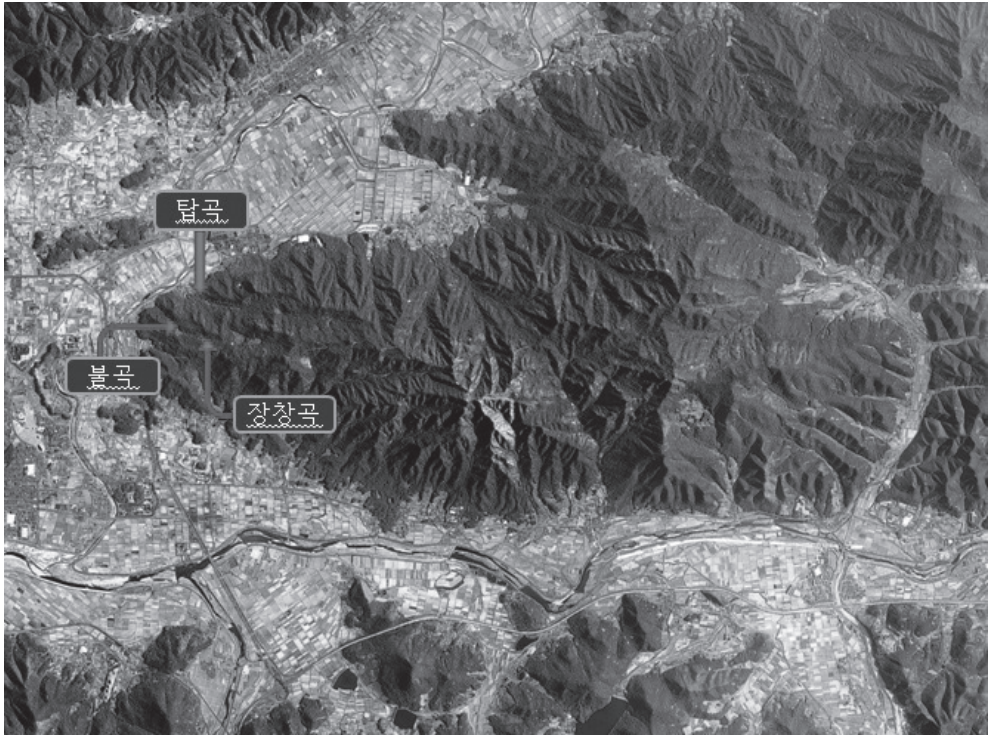
| |
|-----------------------------------|
| I. 머리말 |
| II. 석조미륵불의좌상의 봉안 방식과 특징 |
| III. 7세기 중반 신라의 선관수행과 미륵 사상 |
| IV. 남산 초기 불교 존상과 7세기 중반 신라의 선관수행자 |
| V. 맺음말 |

I. 머리말

7세기 중엽, 신라 왕경[경주]의 대다수 사람들은 645년에 조성된 황룡사 구층탑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왕경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았던 이 탑 뿐만아니라 국가 중요 행사처로서 황룡사가 지닌 정치적인 위상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후대의 연구자들에게도 이어져 7세기 중반의 불교 미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황룡사 구층탑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신라 왕실의 대역사였던 황룡사와 구층탑 건립에 많은 승려들이 힘을 기우리고 있을 때, 일부 승려들은 출가자 본연의 戒를 지키며 수행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았다. 7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남산 초기의 불교 존상 등은 번잡한 도회지를 벗어나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禪觀 수행

* 용인대학교



도 1 남산초기불교존상 분포도

에 전념했던 승려들과 관련 깊은 곳이다(도 1). 佛谷 감실마애조상, 塔谷 마애조상, 長倉谷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 등이 그 예로, 불곡과 탑곡에 보이는 선정인을 하고 있는 존상과 장창곡 석실 속에 봉안되었던 석조미륵불의좌상 등은 7세기 중반 신라 승려들의 선관수행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남산 초기의 이들 존상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이미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들 존상이 양식적으로는 7세기 중반으로 편년되어 남산의 불교 조상 중에서 가장 이른 예로 보면서도 도상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다루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각 존상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이들 존상 간에 보이는 도상적인 연관성에 주목하여 선관수행이라는 관점에서 그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존상 중에서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의 봉안 방식과 도상적인 특징을 통하여 7세기 중반 신라 승려들의 선관수행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석조미륵불의좌상의 봉안 방식과 특징

1. 황혈식 석실분 형태의 석굴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가 쓴 『趣味の慶州』(1931) 첫 페이지에는 1926년, 그와 친분이 있던 코스기 미세이(小杉未醒, 1881-1964)가 그린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의 발굴 현장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도 2).¹ 그림에는 석실 속에 놓인 불상과 이를 바라보는 오사카 긴타로가 서 있다. 오사카 긴타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의 마지막 관장(1938-1945 재임)이다. 사실 이 그림은 코스기 미세이가 발굴 현장에서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국립경주박물관 유물 카드에 의하면, 그가 이 그림을 그리기 1년 전인 1925년 4월에 석조미륵불의좌상은 이미 박물관으로 옮겨와 전시되고 있었다.²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대표적인 경주 남산 유적보고서 『慶州南山の佛蹟』에서는 이 불상을 ‘長倉谷三尊佛’로 명명하고 있으며, 고분에서 출토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도 3).³ 석조미륵불의



도 2 장창곡 석실 발굴 그림,
코스기 미세이(小杉未醒,
1881-1964)작, 1926년



도 3 석조미륵불의좌상 출토 당시 모습(『慶州南山の佛蹟』)

1 大坂六村[大坂金太郎], 『趣味の慶州』, 慶州古蹟保存會, 1931. 장창곡에서 불곡으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에서 북쪽 능선으로 올라가면, 왼쪽에 석주 형태의 돌이 3개 있는데, 그곳이 원래 석실이 있던 곳이다.

2 黃壽永, 『新羅南山三花嶺彌勒世尊』, 『韓國의 佛像』(문예출판사, 1989), p. 310, 주2.

3 小場恒吉 外, 『慶州南山の佛蹟』(朝鮮總督府, 1940), p. 10.

좌상의 고분 출토설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는 석실 고분을 발굴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불상 주변에 고분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불상이 봉안된 곳도 고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미 연구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고분에서 대형 불상이 출토된 예가 전혀 없으며, 부채등(佛背)이라는 현지 지명을 통하여 고분이 아니라 불상 봉안을 위한 석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⁴

한편, 『삼국유사』『生義寺石彌勒』에는 생의사라는 승려가 남산의 南洞에 있던 불상을 파내어 삼화령 위에 두었다가 644년에 생의사를 창건하여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⁵ 『삼국유사』의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불상은 쉽게 옮길 수 있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남동과 삼화령, 생의사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석조미륵불의좌상이 출토된 곳에는 절터가 남아 있는데⁶, 생의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도 4).

1925년의 발굴 현장 사진과 『삼국유사』의 내용이 맞다는 전제 하에 불상 봉안의 전후 사정을 추론해 보면, 남산의 남동에 있던 불상을 파내어 생의사에 봉안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였던 남동에 안치하였을 것이다. 발굴 당시의



도 4 출토지의 현재 모습



도 5 석조미륵불의좌상, 신라 7세기 중반, 167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⁴ 黃壽永, 「新羅 南山三花嶺彌勒世尊」,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乙酉文化社, 1969), pp. 907-941; 앞의 논문(1989), pp. 327-333.

⁵ 『三國遺事』卷3 塔像4 「生義寺石彌勒」, “善德王時 釋生義常住道中寺 夢有僧人上山而行 令結草爲標 至山之南洞 謂曰 我埋此處 請師出安嶺上 既覺 與友人尋所標 至其洞掘地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善德王十三年甲辰歲 創寺而居 後名生義寺 今訛言性義寺 忠談師每歲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

⁶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慶州南山精密學術調查報告書』, 2004, pp. 165-166. 여기서는 이곳을 장창곡 제10 사지(삼존불출토 절터)로 기록하고 있다.

사진과 다음 해에 코스기 미세이가 그린 그림에는 분명 남동으로 추정되는 석실 속에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일연은 13세기 말 『삼국유사』를 찬술하면서 남산 부근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생의사 석미륵에 관하여 전해 듣거나 남겨진 기록을 근거로 그보다 약 650년 전에 만들어진 불상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여 기록하였을 것이다. 발굴 당시의 사진과 『삼국유사』의 기록이 일치하는 것은 남산의 남동[석실]과 그 속에 있던 미륵불상 뿐이다.

7세기 중반, 남산의 남동 즉 석실 조성에 참여한 신라 사람들은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횡혈식 석실 고분을 축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석굴을 조성했을 것이다⁷. 석굴 암벽을 파내어 불상을 새긴 전형적인 중국 석굴과는 다르지만, 최초의 신라식 석굴, 즉 횡혈식 석실분 형태의 석굴을 만들어 석조미륵불의좌상을 봉안했던 것이다.

2. 석조미륵불의좌상의 특징

1) 조형적 특징

석조미륵불의좌상은 타원형에 가까운 방형 대좌 위에 두 발을 앞으로 나란히 내려뜨리고 앉아 있다(도 5). 오른손은 엄지만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오므린 상태에서 세운 다음 손바닥을 앞으로 내보이고 있으며, 왼손으로는 법의 자락을 잡고 있다. 석조미륵불의좌상에서는 몸에 비해 큰 얼굴과 소년 같은 표정, 낮고 편평한 육계, 단순화된 옷주름 처리 등 이전의 신라 조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조형적 특징이 나타난다. 이것은 중국 長安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北周나 隋의 불상과 연계된다(도 6)⁸. 7세기 중반에 조성된 석조미륵불의좌상에서 당의 7세기 불상이 아니라 6세기 말의 북주나 수의 양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수가 장안에 도읍하면서 신라의 유학승들은 대부분 이곳으



도 6 석조불비상(뒷면), 북주 573년,
가로 39cm, 높이 90cm,
甘肅省博物館 소장

⁷ 경주에서 횡혈식 석실분은 6세기 전반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6세기 후반과 7세기 전반에 걸쳐 유행하였다. 최병현, 「경주지역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계층성과 고분 구조의 변천」, 『韓國考古學報』83(2012), pp. 80-129.

⁸ 김춘실, 「7세기 전반 신라불상 양식의 전개와 특징」, 『미술자료』67(2001), pp. 18-19.

⁹ 배진달(배재호), 『중국의 불상』(일지사, 2005), p. 229 재인용.

로 유학하였고, 그들이 장안에서 보았던 불상들은 이전에 장안이 수도였던 서위와 북주의 불상이거나 그것을 계승한 수의 불상이었다. 즉 수의 황제들은 불교를 숭상하여 북주시대 廢佛로 인하여 파손되었던 불상을 수리하고 새로 불상도 많이 만들었다⁹. 그러나 수에서 새로 조성된 불상들은 대부분 북주시대 장안에서 불상을 조성했던 장인이나 그 계보에 의해 주도되어 조형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당나라가 되면서, 장안은 여전히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처음부터 황제들이 도교 우위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650년경까지 불상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645년, 玄奘(600-664)이 귀국하고 7세기 후반 則天武后(624-705)가 불교를 후원하면서부터 당 불상의 양식이 정립되기 시작한다¹⁰. 따라서 장안에 유학했던 신라의 유학승들은 중국불교조각사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 7세기 전반에 수나라에서 수리했던 서위와 북주의 불상이나 그것을 답습한 수나라 불상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 등 남산 초기 불교 존상에 보이는 북주적인 특징은 바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과 관련된다.

2) 도상적 특징

석조미륵불의좌상이 지닌 가장 중요한 도상적인 특징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한 환조의 의좌상이라는 점이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1930년 10월 10일부터 장창곡 인근 마을에서 가져온 2존의 보살상을 불상과 함께 전시하고 있으며¹¹, 지금은 석조미륵삼존상으로 명명되고 있다(도 7). 그간 이 삼존상에 대해서는 석



도 7 석조미륵불삼존상, 신라 7세기 중반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¹⁰ 배진달(배재호), 『당대불교조각』(일지사, 2003), pp. 18-25.

¹¹ 黃壽永, 앞의 논문(1989), p. 316.

¹² 黃壽永, 앞의 논문(1989), pp. 321-322; 문명대, 「돈황 410굴 수대 미륵삼존불의상(倚像)과 삼화령미륵삼존불의상의 연구-돈황석굴 불상의 특징과 그 교류」, 『강좌미술사』42(2014), pp. 121-139.

¹³ 『三國遺事』卷2 紀異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僧曰忠談 日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가여래삼존상, 약사여래삼존상, 아미타불삼존상 등 여러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지금은 미륵불삼존상으로 보고 있다¹².

석조미륵불의좌상이라는 견해는 중국의 의좌상들이 대부분 미륵불이라는 점과 『삼국유사』 「생의사 석미륵」과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에 기록된 三花嶺 彌勒世尊과의 연관 가능성을 통하여 사실화되었다¹³. 즉 『삼국유사』에 근거하여 석조미륵불삼존상은 善德女王 때인 644년에 생의가 땅 속에서 찾았던 미륵세존이며, 삼화령의 “三花”를 3명의 화랑으로 보고 이 삼존을 각각 미륵의 化身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¹⁴. 삼화령 미륵세존이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삼존상일 가능성도 높고¹⁵, 삼화령이 3명의 화랑과 관련될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그것이 정말 석조미륵불삼존상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만약 3명의 화랑을 상징화 하였다면, 3존이 같은 모습과 크기의 불상이거나 보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라에서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에 걸쳐 반가사유상이 유행하였는데¹⁶, 장창곡에 서만 미륵불의좌상이 조성되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미륵 신앙의 유행과 관련하여 반가사유상이 많이 조성되던 시기에 의좌 형식의 미륵불상이 만들어진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몇몇 연구에서 이미 중국과의 연관성을 주목한 바와 같이 이 새로운 도상은 분명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석조미륵불의좌상과 같은 의좌식의 불상은 인도에 그 시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敦煌 莫高窟 272굴의 北涼시대 불상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주로 미륵불로 인식되며 조성되었다. 불상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명문을 동반한 의좌식 불상 중에서 오른손으로 설법인을 결하고,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존상은 대부분 미륵불이다¹⁷. 이러한 점은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이 미륵불상일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 준다.

14 단석산 신선사의 미륵석상 명문과 『삼국유사』 「彌勒仙花」에 근거하여 미륵을 미륵선화로, 미륵선화를 화랑으로, 김유신이 수행했다는 신선사를 미륵선화사로 보고 있다. 또한 3명의 화랑을 뜻하는 삼화령이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삼존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다(黃壽永, 『彌勒信仰과 그 造像』, 『韓國의 佛像』(문예출판사, 1989), p. 122.).

15 『三國遺事』卷5 孝善9 「貧女養母」: “孝宗郎 遊南山 鮑石亭 或云三花述 門客星馬也.” 포석정 부근을 三花述로, 삼화술을 三花峯으로 보기도 한다(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平凡社, 1974), p. 140).

16 田村圓澄, 『半跏思惟像과 聖德太子信仰』, 『韓日古代文化交流史研究』(洪淳稔·田村圓澄 編, 乙酉文化社, 1974), pp. 53-55. 신라에서는 반가사유상과 미륵, 화랑과의 관계가 밀접했을 가능성은 없진 않으나, 이 견해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지나치게 의존한 감이 없지 않다.

17 미륵불의 명문을 지닌 존상 중에는 입상이나 가부좌를 하고 있는 예도 있으나 대부분 의좌식을 하고 있으며(李玉珉, 『隋唐之彌勒信仰與圖像』, 『藝術學』(藝術家出版社, 1987), pp. 103-104), 의좌식의 존상 중에서도 “미륵”이 아닌 다른 존명을 가진 예도 있다.

그런데 7세기 중반 신라에서 석조미륵불의좌상을 조성하였다는 것도 주목되지만, 이 불상을 남산의 남동 측 장창곡 석굴 속에 봉안하였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신라에서는 석조미륵불의좌상을 석굴 속에 봉안한 배경을 알려 줄만한 이렇다 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중국의 魏晉南北朝시대에 미륵불상을 봉안한 석굴들이 대부분 선관 수행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장창곡 석실에서 출토된 석조미륵불의좌상도 이러한 성격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 불상이 출토된 석실은 한두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공간이다. 중국 초기의 선관 수행과 관련되는 돈황 마고굴의 경우도 비슷한 공간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어서 석조미륵불의좌상이 선관 수행과 관련될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 준다.

Ⅲ. 7세기 중반 신라의 선관 수행과 미륵 사상

1. 7세기 중반 신라의 선관 수행

승려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선관은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禪定과 달리, 특정한 대상을 觀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관과 선정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예가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설령 그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인지 선정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¹⁸. 선관 수행은 不淨觀, 白骨觀, 觀佛의 순서로 진행된다. 『禪秘要法經』에 의하면, 중국 초기의 선관 수행은 승려들이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친견하거나 보살과 함께 인간 세상에 下生하여 미륵불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⁹.

우리나라에서 승려들이 선관을 수행한 것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독성 출토 금동불좌상과 6세기의 부여 軍守里사지 출토 석조여래좌상 등 초기 불상의 유형들이 선정인을 결한 불좌상이라는 점은 승려들 사이에 선관 수행이 얼마나 평범한 일상이었는지를 방증해 준다. 이들 불상에서는 승려들이 선관 수행을 통하여 미륵

¹⁸ 『梁高僧傳』에는 중국의 麥積山석굴에서 많은 승려들이 선정을 닦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형적인 표현은 석굴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須藤弘敏, 『禪定比丘圖像與敦煌二八五窟』, 『1987敦煌石窟研究國際討論會文集-石窟考古篇』(遼寧美術出版社, 1990), p. 396).

¹⁹ 『禪秘要法經』卷下, 『大正新修大藏經』(이하 T), 15, No.613, p. 268하: “...佛告阿難 若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繫念住意 心不散亂 端坐正受 住意一處 閉塞諸根 此人安心 念定力故 雖無境界 捨身他世 生兜率天 值遇彌勒 與彌勒俱 下生閻浮提 龍華初會 最先聞法 悟解脫道 復次阿難 佛滅度後 濁惡世中 若有比丘比丘尼 優婆塞優婆夷 實修梵行 行十二頭陀莊嚴身 心行念定 修白骨觀 觀於不淨 入深境界 心眼明利 通達禪法...”



도.8 신묘명 금동불삼존상, 삼국시대 571년, 11.5cm, 리움 소장
(사진제공:리움)

을 만나고자 한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6세기 후반에 조성된 신묘명(辛卯銘) 금동불삼존상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초기의 선관 수행의 목적도 미륵을 친견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1930년, 황해도 谷山郡花村面蓬山里에서 출토된 이 불상은 신묘년(571)에 비구 道■[道須]가 선지식들과 함께 만든 무량수불이다(도 8). 광배 뒷면에 새겨진 67자의 명문에서는 5명의 발원자가 이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으로 그들의 스승으로 추정되는 선지식들이 미륵을 만나길 기원하는 내용이 있다²⁰. 이는 6세기 후반에 선지식 즉 승려들의 궁극적인 수행 목적이 미륵을 만나는데 있다는 것을 밝힌 가장 이른 예의 우리나라 불상이다.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이 조성되던 7세기 중반, 신라의 선관 수행은 직접 자연 속에

20 ...願亡師父母生生心中常值諸佛善知識等值遇彌勒所願如是... 광배 명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원하던 대로 돌아가신 스승과 부모는 태어날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여러 붓대를 기억하고, 선지식(스승)들은 미륵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소원은 이와 같습니다”로 해석된다. 신묘명 금동불삼존상의 명문에 대한 또 다른 견해로는 도이 쿠니히코(土居邦彦), 「삼국시대의 선지식과 지식의 기초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16(1999), pp. 381-382가 있다.

21 원효는 직접 선관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末高僧傳』권제4, 『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 T.50, No.2061, p. 730 상: “...或閭閻寓宿, 或山水坐禪...”, 그가 저술한 여러 책에서 선관 수행과 관련된 이론이 확인된다. 이 중 『天台小止觀』에 기초한 『대승기신론소기회본』과 『禪書』로 별칭되는 『금강삼매경론』은 이러한 이론을 가장 잘 보여준다(李永子, 『元曉의 止觀』, 『韓國天台思想의 展開』(民族社, 1988), pp. 73-89).

22 『대승기신론소기회본』에서 『대승기신론』『修行信心分』을 해석하면서, 대상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을 止라고 하고, 분별하여 진리를 관찰하는 것을 觀이라 하였는데, 선정은 지이며 지혜는 관이지만, 定과 慧는 모두 지관과 통한다고 보았다(金英美, 『新羅佛敎思想史研究』(民族社, 1994), pp. 86-88).

23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연구』(이론과 실천, 1992), p. 25.

서 坐禪한 경험이 있는 元曉(617-686)의 『大乘起信論疏記會本』과 『金剛三昧經論』을 통하여 알 수 있다²¹. 그는 삼매나 선관보다 ‘止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²², 그의 수행 방법은 天台智顗(538-597)의 지관 이론을 기초로 하여 그 나름의 체계를 세운 것이다²³.

『대승기신론소기회본』에 의하면, 지관 즉 선관을 닦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조용한 곳에서 한가롭게 머무는 것,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 業障을 떠나는 것, 옷과 먹을 것을 구비하는 것, 좋은 스승[선지식]을 만나는 것,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을 끊는 것 등이다²⁴.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세를 바로 하고 몸과 마음을 조절해야 한다. 몸을 조절한다는 것은 수행하는 자세를 말하며, 반가좌와 跏趺[가부좌]의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한다.

“... 무엇을 調身이라고 하는가? 자세히 말하면, 먼저 편안히 앉아 있을 곳에서 항상 안온하여 오랫동안 방해가 없게 한다. 다음에는 다리를 바로 해야 하는데, 반가좌라면 왼다리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몸 가까이에 끌어당기고 왼 발가락을 오른쪽 무릎과 나란하게 한다. 전가를 하려고 한다면, 위의 자세를 바꾸어 오른다리를 왼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다음에는 왼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놓는다. 다음으로 옷과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되 앉아 있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한다. 다음에는 손을 편안하게 해야 하니 왼 손바닥을 오른손 위에 두어 손을 겹쳐 서로 상대되게 정돈하여 왼다리 위에 두고 몸 가까이에 당긴 후 중심에 편안하게 두어야 한다. 다음에는 몸을 바로 해야 하니 먼저 그 몸과 여러 支節을 흔들기를 일곱 번이나 여덟 번 하여 스스로 안마하는 것과 같이 하여 팔 다리에 차이가 없게 한다. 몸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여 곧게 하며, 어깨뼈도 상대되게 하여 굽거나 솟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에는 머리와 목을 바르게 하여 코와 배꼽을 상대되게 하며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게 한다. 위를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얼굴을 평행하게 하여 바르게 머물게 한다...”²⁵

즉, 반가좌는 일반적으로 오른다리를 왼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 반가사유상과 달리, 왼

²⁴ 『大乘起信論疏記會本』권6, 『韓國佛教全書』제1책(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 782하: “... 初中言住靜處者 是明緣具而而言之 必具五緣 一者閒居靜處謂住山林 若住聚落 必有喧動故 二者持戒清淨 謂離業障 若不淨者 必須懺悔故 三者衣食具足 四者得善知識 五者息諸緣務 今略舉初...”

²⁵ 『大乘起信論疏記會本』권6, 『韓國佛教全書』제1책, pp. 782하-783상: “...云何調身 委悉而言 前安坐處 每令安穩 久久無妨 次當正脚 若半跏坐 以左脚置右髀上 牽來近身 令左脚指與右膝齊 若欲全跏趺 改上右脚必置左髀上 次左脚置右膝上 次解寬衣帶 不坐時落 次當安手 以左手掌置右手上 累手相對 頓置左脚上 牽來近身 當心而安 次當正身 前當搖動其身 并諸支節 依七八反 如自按摩法 勿令手足差異 正身端直 令肩骨相對 勿曲勿聳 次正頭頸 令鼻與臍相對 不偏不邪 不仰不卑 平面正住...”

다리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다고 한다. 비록 발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6세기말부터 7세기 전반에 걸쳐 유행했던 반가사유상이 선관 수행과 연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전기의 자세는 남산 초기 불교 존상에 보이는 복부 중앙에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선정인 존상들을 연상하게 한다.

사실 원효가 말한 선관 수행의 자세는 신라 승려들 사이에 단편적으로 행해졌던 선관 이론을 정리하여 초보자들에게 그 수행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²⁶. 이는 그가 올바른 선관 수행법을 정리해야 할 만큼 7세기 중반에 많은 승려들이 다양한 형태의 선관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²⁷.

2. 7세기 중반 신라의 미륵 사상

7세기 중반의 신라 승려들이 부정관과 백골관의 수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觀하고자 했던 것은 미륵불이었다. 이 무렵 신라에서는 미륵 신앙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륵 신앙과 관련된 경전은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沮渠京聲, 455년), 『彌勒下生成佛經』(鳩摩羅集, 402

²⁶ 金英美, 앞의 책, p. 90.

²⁷ 원효 이전에도 선관 수행자가 있었다는 것이 『삼국유사』에서 확인된다(『三國遺事』卷4 義解5, 「良志使錫」). 한편 문무왕대에 이르면 미륵불과 아미타불을 함께 관하는 선관 수행이 나타나기도 한다(『三國遺事』卷5 感通7, 「廣德嚴莊」).

²⁸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T.14, No.452, p. 420상: “...如是等衆生若淨諸業行六事法, 必定無疑當得生於兜率天上, 值遇彌勒, 亦隨彌勒下閻浮提, 第一聞法於未來世...” “彌勒下生像”의 명문을 지닌 北京 故宮博物院 소장의 北齊 天保 2년(551)명 석조보살교각상은 보살 형식의 존상이 상생신앙 뿐만아니라 하생신앙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胡國強, 『故宮收藏 你應該知道的200件曲陽造像』(北京:紫禁城出版社, 2009): “天保二年五月一日清信士女佛弟子張双臥爲亡夫楊早造彌勒下生像一區舉高尺八愿使亡夫舍穢託生得妙淨果并及眷屬居得常樂.”; 강희정, 「남북조시대의 미륵상과 미륵신앙」, 『관음과 미륵의 도상학』(학연문화사, 2006), pp. 213-217). 돈황 막고굴의 수대 미륵경변상도도 대부분 미륵상생신앙과 관련되며, 미륵하생신앙과 연관되는 미륵경변상도는 당대가 되어서야 나타난다. 미륵하생경변상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千福寺에서 吳道子가 그린 미륵하생변으로, 8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확인된다(李玉珉, 앞의 논문, pp. 98-100).

²⁹ 신라에서 『미륵하생성불경』의 經疏는 7세기말부터 8세기초 무렵에 활동했던 憬興의 『彌勒下生經疏』 1권, 8세기에 활동했던 太賢의 『彌勒下生古述記』 1권 등 8세기 이후에 찬술된 반면, 『관미륵보살상생도술전경』의 경소는 元曉의 『彌勒上生經宗要』 1권과 귀국하진 않았지만 신라의 당 유학승이었던 圓測(613-696)의 『彌勒上生經略贊』 2권 등 7세기에 주로 저술되었다. 한편, 眞智王(576-579 재위) 때, 興輪寺의 眞慈가 미륵보살상 앞에서 미륵보살이 신라의 화랑으로 세상에 화현하기를 기원하자 그것에 감응하여 나타난 彌勒仙花 未尸郎을 미륵보살의 하생으로 보기도 하며(허경구, 「원효의 미륵상생경 전관」, 『한국사상논문선집』 284(불함문화사, 2005), p. 52), 단석산 신선사 마애조상의 주존인 미륵불상을 『미륵하생성불경』에 경전적 배경을 두기도 한다(고혜련, 「단석산 미륵삼존불 도상 재고」, 『新羅史學報』 29(2013), pp. 411-440).

년), 『彌勒大成佛經(鳩摩羅集, 402년) 등 3부가 있다. 이 중에서 선관 수행과 관련되는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에서는 선관 수행자가 도솔천에 상생한 다음, 미륵보살을 따라 하생하여 설법을 듣는 것을 경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²⁸.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을 선관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미륵하생불경』이나 『미륵대성불경』보다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²⁹. 즉 석조미륵불의좌상이 조성되던 7세기 중반에 『미륵하생불경』의 經疏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으나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의 경소는 찬술되었기 때문이다.

신라의 미륵 사상과 관련되는 경소는 원효, 圓測(617-686),憬興, 義寂(681년 출생), 太賢 등에 의해 저술되었다. 이 중 원효는 미륵 사상을 학문적으로 다룬 최초의 신라 승려이자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이 조성되던 7세기 중반에 활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륵 사상과 관련되는 원효의 저술은 『彌勒上生經宗要』 1권과 『彌勒上下生經疏』 3권으로, 이 중 『미륵상생경중요』만 남아 있다. 이 책은 후대의 많은 승려들에 의해 인용되는 등 신라에서 미륵 사상이 발전할 수 있었던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였다³⁰.

『미륵상생경중요』는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大意 등 10개의 항목[門]으로 나누어 그 함의를 원효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다³¹. 大意門에서는 이 경전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선관 수행을 하도록 권하는 진실한 경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³², 三經同異門에서는 上品의 근기를 지닌 수행자들이 觀佛三昧나 懺悔行法을 통하여 現身[현재의 몸]으로 미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은 일반적인 도상관에서 보면, 불상이기 때문에 『미륵하생불경』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 불상은 7세기 중반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당시 경소가 찬술된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³³. 이 경전은 우리나라 미륵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경전으로, 미륵상생신앙과 미륵하생신앙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⁴. 중국에서도 7세기 이

30 오형근, 「신라 유가 사상의 전개와 미륵 신앙」, 『韓國彌勒思想』(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7), pp. 93-94.

31 安啓賢, 『新羅淨土思想史研究』(玄音社, 1987), pp. 69-98.

32 『彌勒上生經宗要』, 『韓國佛敎全書』 제1책, p. 547중하: “...今此經者 斯乃略歎至人垂天之妙迹 觀物脩觀之真典也...”

33 중국에서도 수나라 智顓의 『미륵상생경소』(현존하지 않음)와 당나라 窺基(632-682)의 『미륵상생경소』 등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의 경소가 『미륵하생불경』의 그것보다 앞서 찬술되었다. 즉 수와 당의 미륵 신앙은 위진남북조시대에 기초를 두고 천태종과 법상종 승려들의 주도하에 발전하였다(Yu-Min Lee, *The Maitreya Cult and Its Art in Early China*, Ohio State University, 1983, Ph D. diss.,;李玉珉, 앞의 논문, pp. 91-118).

34 홍윤식, 『한국사상에 있어 미륵신앙과 그 사상적 구조』(서문문화사, 1994), pp. 79-82.

전에 조성된 미륵불의좌상이 『미륵하생생불경』과 관련될 가능성은 전혀 없진 않으나 대부분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과 연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을 보면, 그것이 의좌식의 미륵불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상적인 배경은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의좌식의 미륵불상은 玄奘이 645년에 인도에서 귀국한 후, 장안에서 유행했던 新唯識學과 관련이 깊다³⁵. 즉 7세기 후반에 조성된 당의 불의좌상들은 대부분 신유식학과 연관된다³⁶. 만약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의 도상적인 근거를 현장의 신유식학에서 찾는다면,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되어야 하며, 『삼국유사』에 기록된 644년설이 맞다면, 현장의 귀국보다 1년이나 앞서기 때문에 신유식학에서 그 도상적인 전거를 찾기는 곤란하다.

IV. 남산 초기 불교 존상과 7세기 중반 신라의 선관 수행자

1. 남산 초기 불교 존상

장창곡에 석실을 만들고 그 속에 석조미륵불의좌상을 봉안한 다음, 선관을 닦았을 가능성은 불곡이나 탑곡 등 경주 남산 초기의 불교 존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석조미륵불의좌상이 출토된 곳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불곡 감실마애조상이 있다(도 9). 자연 암반 가운데 마련된 높이가 150cm, 최대 너비 110cm, 깊이 90cm 크기의 감실 속에 약 115cm 크기의 존상이 고부조로 새겨져 있다³⁷. 존상은 한 사람의 수행 공간을 연상하게 하는 감실 속에서 선정인을 결한 채 가부좌를 하고 있다. 턱을 당기고 살짝 숙인 머리와 적정한 얼굴 표정에서 선관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³⁵ 신유식학은 미륵 신앙을 동반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가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攝大乘論』의 저자 無着이 미륵보살의 설법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데서 유래한다(金福順, 『新羅 瑜伽系 佛教-8 · 9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대 불교사연구』(민족사, 2002), p. 158).

³⁶ 현장의 미륵 신앙도 도솔천에 상생한 다음, 미륵보살을 따라서 인간 세상에 하생하여 龍華三會에서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는 도솔천 왕생이 수행자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미륵불화 1천량과 宋法智에게 명하여 嘉壽殿에 菩提像를 만들게 한 다음, 임종에 즈음하여 이러한 佛事의 공덕으로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만나고 다시 보살을 따라 하생하여 크게 불사를 하고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소원하였다(『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권제10, T.50, No. 2053, p. 277상: “...願以所修福慧廻施有情 共諸有情同生觀史多天彌勒內眷屬中 奉事慈尊 佛下生時 亦願隨下廣作佛事, 乃至無上菩提...”).

³⁷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책, pp. 298-299.



도 9 불국 감실마애조상, 삼국시대 7세기 중반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존상에 대해서는 여래상이라는 견해와³⁸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³⁹, 남산 초기 불교 존상이라는 범주 속에서 보면, 탑곡 마애조상과 같이 선정인을 결한 승려상일 가능성이 높다. 석굴 속에 선정인의 승려상이 조성되는 전통은 석가모니불의 법의[僧伽利]를 미륵불에게 전하기 위하여 굴속에서 선정에 들어가 있던 대가섭의 모습에서 시작되었다⁴⁰. 그러나 늙고 주름진 얼굴을 한 일반적인 대가섭의 모습을 불국 감실마애조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선관 수행자로서의 일반적인 승려상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불상의 특징

³⁸ 문명대, 「경주남산불적의 변천과 불국 감실불상고」, 『신라문화』, 10·11합집(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4), p. 27; 강우방, 「경주남산론」, 『원용과 조화』(열화당, 1996), p. 398; 광동석, 「남산유적 불상고찰」, 『경주남산의 불교유적 III』(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p. 234.

³⁹ 9세기 이후에 조성된 승가대사상으로 보거나(김창호, 「경주불상 2예에 대한 이설」, 『경주문화』9(경주문화원, 2003), pp. 135-144), 석가모니불의 법의를 미륵불에게 전하기 위하여 鷄足山의 석굴 속에 선정하고 있는 대가섭으로 보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Sunkyung Kim, "Awakened, Awaiting, or Meditating?: Readdressing a Silla Period Image from the Buddha Valley on Mount Nam,"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16, no.1(Spring, 2011), pp. 122-141).

⁴⁰ 宮治昭, 『彌勒と涅槃の圖像學』(東京:吉川弘文館, 1992), p. 457.



도 10 敦煌 莫高窟 285굴 정벽, 서위

인 광배와 백호, 삼도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점, 머리에 천을 덮은 쓴 듯한 모습, 수행의 정도가 높은 고승들에게나 볼 수 있는 솟아오른 정수리가 표현되어 있는 점 등은 선관 수행자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한편 감실을 파고 像을 고부조로 새긴 형식에 근거하여 중국 山東省 神通寺 감실 조상과의 친연성을 언급한 글도 있으나⁴¹, 불국 감실마애조상과 가장 비슷한 중국의 예는 선관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돈황 막고굴 285굴의 존상이다(도 10)⁴². 285굴은 서위의 438년경에 조성된 東陽王 元榮과 관련되는 석굴로, 정벽에 3개의 감실을 파고, 중앙 감실에는 미륵불의좌상이, 양쪽 감실에는 선정인을 결한 존상이 조성되어 있다⁴³. 이 석굴의 천정이 시작되는 곳에도 감실 속에서 선정인을 하고 있는 35존의 승려상이 그려져 있으며, 그 중에는 반가사유상 1존이 포함되어 있다⁴⁴. 비록 이 석굴이 서위 때에 조성되었지만, 선관 수행을 위한 전형적인 석굴로, 장창곡 출토 석조 미륵불의좌상과 같이 미륵불의좌상을 주존으로 봉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또한 주존 양옆의 감실 조상이 불국 감실마애조상과 유사한 점은 남산 초기의 불교 존상이 선관 수행과 관련될 가능성을 높여 준다⁴⁵.

41 문명대, 「경주 남산 불국 감실 불좌상과 중국 산둥 신통사 감실 석굴 불상의 비교」, 『三國時代 佛教彫刻史 研究-관 불과 고졸미』(예경, 2003), pp. 364-375.

42 배재호, 『세계의 석굴』(사회평론, 2015), pp. 117-143.

43 須藤弘敏, 앞의 논문, pp. 393-413.

44 돈황 막고굴 285굴에 보이는 이러한 배치를 통하여 반가사유상도 선관 수행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배재호, 앞의 책(2015), pp. 133-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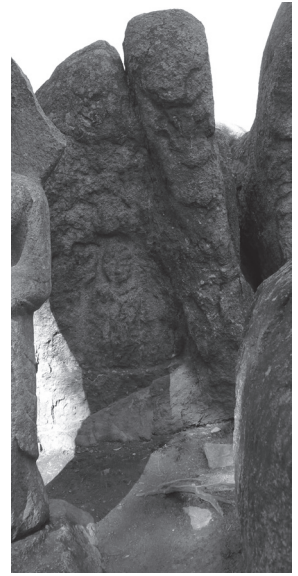
도 11 남산 월정사 뒤 선각 선정인 존상, 연대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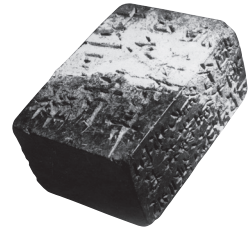
도 12 탑곡마을에조상 수하 승려상, 삼국시대 7세기 중반

불곡 감실마애조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멀지 않은 곳에 불곡과 탑곡 마애조상 사이에 위치한 月靜寺 뒷산 바위 면에 전각 속에서 선정인을 결한 존상이 새겨져 있다(도 11)⁴⁶. 이 존상이 언제 조성되었는지, 그 성격이 승려상인지 불상인지도 구별하기 어려우나 선정인을 한 존상이라는 점에서 이곳이 선관 수행처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여기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 탑곡 마애조상에도 불상과 탑이 새겨져 있는데⁴⁷, 이 중에는 선관 수행과 관련되는 선정인의 승려상도 있다. 즉 동면의 두 그루 나무 사이에 가부좌를 한 채 선정인을 한 승려상과(도 12)⁴⁸ 남면의 얇은 감실 속에 저부조로 새겨진 선정인의 승려상(도 13)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나무 아래와 바위틈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선관 수행과 관련되는 경전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한편, 1926년경, 선방사 삼체석불 부근에서 발견된 塔誌도 남산 초기 불교 존상이 선관 수행과 관련될 가능성을 방증해 준다(도 14). 탑지는 통일신라시대인 乾符 6년(897) 5월 15일에 선방사 탑을 수리한 후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삼체석불이 있던 곳이 원래 선방사라는 것을 알려 준다⁴⁹. 비록 탑지가 남산 초기 불교 존상이 조성되던 7세기 중반의 것은 아니지만, 참선하던 절이라는 뜻의 “禪房”이라는 명칭에서 삼체석불이 조성되던 7세기 중반부터 이곳이 선관 수행처였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도 13 탑곡마애조상 감실 승려상. 삼국시대 7세기 중반



도 14 선방사 출토 탑지, 통일신라시대 897년, 9.0cm×6.1cm×3.5cm, 『신라문화연구』 6·7합집, p.97

⁴⁵ 돈황 막고굴 중 인도의 비하라식 석굴과 가장 유사한 것이 285굴로, 석굴 속 양측면에는 각각 4개의 감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석굴이 선관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⁴⁶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책, p. 306. 여기서는 통일신라시대로 편년하고 있다.

⁴⁷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앞의 책, pp. 307-311.

⁴⁸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南山塔谷磨崖佛)의 四方佛」, 『한국사연구』18(1977), p. 56. 이 글에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참선하는 승려상으로 보았다.

⁴⁹ 黒田幹一, 「新羅時代の金銀に就いて」, 『書物同好會冊子』4(1938), pp. 415-424; 박방룡, 「신라 선방사탑지에 대한 천견」, 『불교고고학』3(위덕대학교박물관, 2003), pp. 13-20; 許亨旭·李榮勳, 「日帝强占期の文化財 寫真 資料 紹介」, 『新羅文物研究』 6·7(2014), p. 97.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乾符六年己亥五月十五日 禪房寺塔練治內記 佛舍利二十三 金一分惠重入 銀十五分道如入 節上和上忠心 第二志萱 大伯士釋林典道如唯乃志空.”

2. 7세기 중반 신라의 선관 수행자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을 포함한 남산 초기의 불교 존상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중국의 장안 양식과 관련된다. 북주 불상과 같은 석조미륵불의좌상의 아담한 모습과 5등신에 가까운 조형적인 비례, 동황 막고굴 285굴 정벽 불감 속 선정인 존상과 유사한 불곡 감실마애조상, 횡혈식 석실분 형태의 신라식 석굴 속에 불상을 봉안한 장창곡 석실의 석조미륵불의좌상 등은 신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만의 특징이다.

석조미륵불의좌상은 6세기 후반이나 7세기 전반에 수나 당에 유학한 신라 승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승려는 서위와 북주, 수, 당의 전통이 이어지던 장안에서 유학하였고⁵⁰, 이 과정에서 불의좌상을 접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석조미륵불의좌상은 7세기 중반에 당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승려 중에서 이 정도 수준의 불상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선관 수행의 경험이 있던 승려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圓光(555-638)과 慈藏(590-658) 등은 7세기 전반 신라의 당 유학승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원광은 남조 陳에서 유학하던 중 수가 중국을 통일하자 장안으로 거처를 옮겨 『攝大乘論』을 공부하였다. 자장은 선덕여왕 7년(638)에 장안의 空觀寺에서 法常(567-645)에게 『섭대승론』을 수학한 후 선덕여왕 12년(643)년에 귀국하였다⁵¹. 원광과 자장 외에 6세기 말부터 7세기 전반까지 장안에 유학했던 신라의 승려들은 대부분 『섭대승론』을 배웠다.

현존하는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신라의 당 유학승 중에서 석조미륵불의좌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람은 자장이 유일하다. 『삼국유사』 『慈藏定律』과 『續高僧傳』 『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에 의하면, 그는 당으로 유학 가기 전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枯骨觀[白骨觀]을 닦았다고 한

⁵⁰ 신라의 당 유학승은 대략 170여명에 이른다(권덕영, 『唐 長安의 新羅僧과 日本僧, 그 과거와 현재』, 『사학연구』 110(2013.6), pp. 47-86).

⁵¹ 자장의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636년설(『三國遺事』권제4, 義解 제5, 『慈藏定律』)과 638년설이 있다(『續高僧傳』권제24 『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 T.50, No.2060, pp. 639상-641상;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三國史記』권제5 『新羅本紀』제5 善德女王 5년). 자장이 당의 장안으로 유학한 가장 큰 목적은 법상으로부터 『섭대승론』을 배우는 것이었다(『續高僧傳』권제15 『唐京師普光寺釋法常傳』, T.50, No.2060, p. 541상: “...新羅王子金慈藏輕忽貴位 棄俗出家 遠聞處仰思觀言令 遂架山航海遠造京師 乃於船中夢觀顏色 乃觀形狀宛若夢中 悲涕交流欣其會遇 因從受菩薩戒 盡禮事焉...”).

⁵² 자장이 닦았던 고골관은 『三國遺事』(권제4, 義解 제5, 『慈藏定律』)와 『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續高僧傳』권제24, T.50, No.2060, p. 639상: “...遂登階陁獨靜行禪 不避虎兇常思難施 時或弊睡心行將微 遂居小室 周障棘刺露身直坐 動便刺肉 懸髮在梁 用袈昏漠 修白骨觀轉向明利...”)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남무희, 『신

다⁵². 고골관은 『선비요법경』에 기초한 선관 수행법으로⁵³, 수행의 목적이 미륵을 만나는 데 있는 不淨觀法 다음 단계의 수행법이다. 고골관은 『선비요법경』定宗分の “조용한 곳에서 가부좌를 하고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제1관법 繫念法과 제2관법 白骨觀想法, 제11관법 白骨流光觀法과 연관된다. 즉 자장이 수행했던 고골관은 7세기 신라에서 선관 수행의 중요한 지침서였던 『선비요법경』과 관련된다.

한편 자장이 법상에게 『섭대승론』을 배우기 위하여 장안의 공관사에 유학했던 것도 그가 출가하기 전에 닦았던 고골관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無着에 의해 『섭대승론』이 찬술되면서부터 唯識 사상의 체계가 수립되었는데, 유식 사상은 선관 수행자들의 경험을 이론화시킨 것이다. 즉 선관 수행은 유식 사상을 이론화시킨 사람들이 행했던 불교 참선법의 핵심이다. 자장은 당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미 선관 수행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론인 『섭대승론』의 유식 사상을 배우기 위하여 법상을 찾아갔던 것이다. 귀국 후, 그는 황룡사에서 선관 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섭대승론』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초기에 그가 수행했던 고골관은 이후 자장의 계율 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측된다⁵⁴.

자장은 신라에서 승려들의 계율을 처음으로 확립했던 인물로서, 스스로 고골관을 수행하는 등 선관 수행의 기본이었던 持戒淸淨의 정신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⁵⁵. 그는 미륵을 친견하는데 목적을 둔 『선비요법경』의 백골관을 닦았고, 당 유학에서 미륵의 가르침인 『섭대승론』을 공부하였다는 점에서 미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자장이 선관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그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출가 후 巖叢에 깊이 은거한 점, 당 유학 중에 長安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終南山 雲際寺 동쪽에 절을 짓고 3년 동안 살았던 점, 현전하지 않은

라자장연구(서경문화사, 2012), pp. 100-101 재인용). 한편 그의 고골관 수행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원광이 주목된다(朴太源, 『慈藏 사상의 기반-白骨觀 수행의 사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佛敎文化研究』4(靈鷲佛敎文化研究院, 1995), pp. 103-105).

⁵³ 자장의 고골관이 『中阿含經』身念處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朴太源, 위의 논문, p.106).

⁵⁴ 朴太源, 앞의 논문, pp. 117-119. 자장의 계율 의식 형성에 『열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南東信, 『慈藏定律과 四分律』, 『불교문화연구』(영취불교문화연구원, 1995), pp. 85-101).

⁵⁵ 비록 자장을 율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남산 초기 불교 존상이 조성되던 신라 7세기 중반에 불법을 깨닫는 핵심이자 분류인 戒定慧 3學에 대하여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원광이 道學, 儒學, 삼장 경론을 섭렵하면서도 念定(正念과 正定)과 覺觀을 수행한 것이나 양지가 靈廟寺 장육존상을 만들 때 선정에 든 다음에 조성하였다는 사실 등은 이러한 구분이 없었음을 알려 준다(『三國遺事』卷4 義解5 『良志使錫』). 자장도 율사이자 선사, 법사로서 3학을 두루 겸비한 승려였다. 즉 고골관을 닦으면서도 『섭대승론』을 공부하고 授戒壇 설치를 주도하던 그의 모습에서 그러한 성격이 확인된다. 사실 삼학에 대한 구별은 나말여초 선종의 세력이 확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추만호, 『나말여초 선종사상사연구』, 이론과 실천, 1992).

나 『觀行法』 1권을 저술할 만큼 선관 수행 이론에 일가견이 있었다는 점⁵⁶ 등이 그것이다.

사실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7세기 중반 신라에서 『선비요법경』에 기초하여 선관을 수행하고 『섭대승론』을 배운 승려는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창곡 석실 속에서 선관을 수행했던 승려도 부정관과 백골관의 단계를 거쳐 미륵불을 관하기 위하여 석조미륵불의좌상을 조성하고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선관 수행과 관련되는 석조미륵불의좌상과 남산 초기 불교 존상들은 『선비요법경』에 기초하여 수행하면서 미륵불 친견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 수행했던 7세기 중반의 신라 승려들과 관련된다⁵⁷. 이들 승려들의 교화적인 배경은 『섭대승론』이었는데, 이 경전은 미륵보살이 설한 내용으로, 7세기 전반에 신라에서 미륵 사상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미륵 사상을 미륵상생신앙과 미륵하생신앙을 모두 포함하는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⁵⁸. 즉 이들 승려는 『선비요법경』과 『섭대승론』의 부정관과 백골관 등 선관 이론과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의 관불을 통하여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하는 미륵불을 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도 조성된 것이다.

V. 맺음말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은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기록과 불의좌상의 형식을 통하여 『미륵하생불경』의 미륵하생신앙과 관련되는 삼화령 미륵세존으로 인식되어 왔다.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미륵보살의 성격을 지닌 반가사유상이 유행하던 신라 7세기 중반에 불의좌상으로 조성된 유일한 예라는 점과 그것이 신라 석굴의 초기 유형이라 볼 수 있는 황혈식 석실분 형태의 석굴 속에 봉안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석굴 규모에 비해 큰 불의좌상을 주존으로 봉안한 것은 신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으나, 중국에서는 그것이 선관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초기의 선관 수행자들은 미륵불이

⁵⁶ 『續高僧傳』 권제24, 『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 T.50, No.2060, p. 640상.

⁵⁷ 탑곡 바로 남쪽에는 彌勒谷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 계곡을 미륵곡이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륵 친견과 관련되는 선관수행처를 연상하게 만든다.

⁵⁸ 智儼(602-668)의 화엄을 배우고 당에서 돌아온 의상이 『華嚴—乘法界圖記略疏』에서 『섭대승론』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원효가 『攝大乘論世親釋論略記』를 저술한 것은 이 경전이 7세기 후반 신라 승려들에게 교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알려 준다(金福順, 『新羅 瑜伽系 佛教—8·9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대불교사연구』(민족사, 2002), pp. 160-161).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하는 것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런데 미륵 보살을 따라 하생하여 미륵불의 설법을 듣고자 했지만, 그 경전적인 배경은 『미륵하생불경』이 아니라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이었다. 이 경전은 미륵상생신앙과 미륵하생신앙을 모두 포함하는 선관 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7세기 중반 신라에서 미륵 신앙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석조미륵불의좌상도 장창곡 석굴 속에서 이 불상을 觀하면서 미륵불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했던 신라의 선관 수행승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석조미륵불의좌상이 선관 수행과 관련될 가능성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불국 감실마애조상과 탑곡 마애조상에 보이는 선정인을 결한 승려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신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만의 특징이다. 석조미륵불의좌상과 함께 7세기 중반에 조성된 경주 남산의 초기 불교 존상들이 7세기 전반 당나라 장안 양식의 영향을 받았듯이 이들 존상에 보이는 선관 수행의 모습도 중국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석조미륵불의좌상은 이러한 형식의 불상을 많이 보았던 경험이 있고, 이만한 수준의 불상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7세기 전반 당나라에 유학한 신라의 선관 수행승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출가 전에 이미 고골관을 닦고, 그 이론인 『섭대승론』을 배우기 위하여 당의 장안에 유학했던 자장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선관 수행자이다.

한편 『삼국유사』의 삼화령 미륵세존이 석조미륵불의좌상이라고 한다면, 승려 생의의 불교 신앙이 불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자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신라 승려가 선관 수행을 목적으로 석조미륵불의좌상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석조미륵불의좌상은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삼화령 미륵세존이라는 관념적인 틀 속에서 화랑과 미륵 신앙이라는 설화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불상이 언제부터 설화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불상 조성의 원래 목적은 선관 수행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주제어(key words)_미륵(彌勒, Maitreya), 선관(禪觀, *dhyana*), 선비요법경(禪秘要法經, *Chan mi yaofa jing*),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Guan Mile pusa shangsheng Doushuaitian jing*), 자장(慈藏, *Jajang*)

■ 투고일 2015년 12월 9일 | 심사개시일 2015년 12월 10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월 18일 ■

참고문헌

1. 사료

『三國遺事』

『禪秘要法經』

『宋高僧傳』

『大乘起信論疏記會本』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彌勒上生經宗要』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2. 단행본

1) 한국어

洪淳熙·田村圓澄 編, 『韓日古代文化交流史研究』, 乙酉文化社, 1974.

安啓賢, 『新羅淨土思想史研究』, 玄音社, 1987.

黃壽永, 『韓國의 佛像』, 문예출판사, 1989.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연구』, 이론과 실천, 1992.

홍윤식, 『한국사상에 있어 미륵신앙과 그 사상적 구조』, 서문문화사, 1994.

金英美, 『新羅佛敎思想史研究』, 民族社, 1994.

강우방, 『원융과 조화』, 열화당, 199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 『韓國彌勒思想』,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7.

金福順, 『한국고대불교사연구』, 민족사, 2002.

김리나, 『韓國古代佛敎彫刻比較研究』, 일조각, 2003.

문명대, 『三國時代佛敎彫刻史 研究-관불과 고졸미』, 예경, 2003.

배진달(배재호), 『당대불교조각』, 일지사, 200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慶州南山精密學術調査報告書』, 2004.

배진달(배재호), 『중국의 불상』, 일지사, 2005.

강희정, 『관음과 미륵의 도상학』, 학연문화사, 2006.

남무희, 『신라자장연구』, 서경문화사, 2012.

배재호, 『세계의 석굴』, 사회평론, 2015.

2) 중국어

胡國強, 『故宮收藏 你應該知道的200件曲陽造像』, 北京:紫禁城出版社, 2009.

3) 일본어

大坂六村[大坂金太郎], 『趣味の慶州』, 慶州古蹟保存會, 1931.

小場恒吉 外, 『慶州南山の佛蹟』, 朝鮮總督府, 1940.

宮治昭, 『彌勒と涅槃の圖像學』, 東京:吉川弘文館, 1992.

4) 영어

Yu-Min Lee, *The Maitreya Cult and Its Art in Early China*, Ohio State University, 1983, Ph D. diss.

2. 논문

1) 한국어

黃壽永, 『新羅 南山三花嶺彌勒世尊』,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乙酉文化社, 1969, pp. 907-941.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南山塔谷磨崖佛)의 四方佛』, 『한국사연구』18, 1977, pp. 49-75.

李永子, 『元曉의 止觀』, 『韓國天台思想의 展開』, 民族社, 1988, pp. 73-89.

南東信, 『慈藏定律과 四分律』, 『불교문화연구』, 영취불교문화연구원, 1995, pp. 85-101.

朴太源, 『慈藏 사상의 기반-白骨觀 수행의 사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佛敎文化研究』4, 靈鷲佛敎文化 研究院, 1995, pp. 103-120.

도이 쿠니히코(土居邦彦), 『삼국시대의 선지식과 지식의 기초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16, 1999, pp. 375-411.

김춘실, 『7세기 전반 신라불상 양식의 전개와 특징』, 『미술자료』67, 2001, pp. 1-34.

문명대, 『경주 남산 불국 감실 불좌상과 중국 산동 신통사 감실 석굴 불상의 비교』, 『三國時代佛敎彫刻史研究-관불과 고졸미』, 예경, 2003, pp. 364-375.

박방룡, 『신라 선방사탑자에 대한 천견』, 『불고고고학』3, 위덕대학교박물관, 2003, pp. 13-20.

최병현, 『경주지역 신라 황형석실본의 계층성과 고분 구조의 변천』, 『韓國考古學報』83, 2012, pp. 80-129.

권덕영, 『唐 長安의 新羅僧과 日本僧, 그 과거와 현재』, 『사학연구』110, 2013, pp. 47-86.

문명대, 『돈황 410굴 수대 미륵삼존불의상(倚像)과 삼화령미륵삼존불의상의 연구-돈황석굴 불상의 특 징과 그 교류』, 『강좌미술사』42, 2014, pp. 121-139.

고혜련, 「단석산 미륵삼존불 도상 재고」, 『新羅史學報』29, 2014, pp. 411-440.

:許亨旭·李榮勳, 「日帝強占期の文化財 寫眞 資料 紹介」, 『新羅文物研究』6·7, 2014, pp. 89-115.

2) 중국어

李玉珉, 「隋唐之彌勒信仰與圖像」, 『藝術學』1, 藝術家出版社, 1987, pp. 91-118.

須藤弘敏, 「禪定比丘圖像與敦煌二八五窟」, 『1987敦煌石窟研究國際討論會文集-石窟考古篇』, 遼寧美術出版社, 1990, pp. 393-413.

3) 일본어

黒田幹一, 「新羅時代の金銀に就いて」, 『書物司好會冊子』4, 1938, pp. 415-424.

4) 영어

Sunkyung Kim, "Awakened, Awaiting, or Meditating?: Readdressing a Silla Period Image from the Buddha Valley on Mount Nam,"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16, no.1 (Spring, 2011), pp. 122-141.

국문초록

장창곡 출토 석조미륵불의좌상은 지금까지 『三國遺事』의 기록과 불의좌상의 형식을 통하여 『彌勒下生成佛經』의 彌勒下生信仰과 관련되는 三花嶺 彌勒世尊으로 인식되어 왔다.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미륵보살의 성격을 지닌 반가사유상이 유행하던 신라 7세기 중반에 불의좌상으로 조성된 유일한 예라는 점과 그것이 신라 석굴의 초기 유형이라 볼 수 있는 횡혈식 석실분 형태의 석굴 속에 봉안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석굴 속에 불의좌상을 봉안한 것은 신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으나, 중국에서는 그것이 禪觀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초기의 선관 수행자들은 彌勒佛이 龍華樹 아래에서 설법하는 것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 경전적인 배경은 『彌勒下生成佛經』이 아니라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이었다. 이 경전은 미륵상생신앙과 미륵하생신앙을 모두 포함하는 선관 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7세기 중반 신라에서 미륵 신앙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석조미륵불의좌상도 장창곡 석굴 속에서 이 불상을 觀하면서 미륵불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했던 신라 승려와 관련된다.

석조미륵불의좌상이 선관 수행과 관련될 가능성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佛谷 감실마애조상과 塔谷 마애조상에 보이는 禪定印을 한 승려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신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만의 특징이다. 석조미륵불의좌상과 함께 7세기 중반에 조성된 경주 남산의 초기 불교 존상들이 당나라 長安 양식의 영향을 받았듯이 이들 존상에 보이는 선관 수행의 모습도 중국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석조미륵불의좌상은 이러한 형식의 불상을 많이 봤던 경험이 있고, 이만한 수준의 불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7세기 전반 당나라에 유학한 신라의 선관 수행승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출가 전에 이미 枯骨觀[白骨觀]을 닦고, 그 이론인 攝大乘論을 배우기 위하여 당의 장안에 유학했던 慈藏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선관 수행자이다. 설령 자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험을 가진 승려가 『선비요법경』과 『집대승론』의 不淨觀과 白骨觀 등 선관 이론과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을 통하여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하는 미륵불을 觀하고자 장창곡 석실 속에 미륵불상을 조성했던 것이다.

한편 『삼국유사』에 기록된 삼화령 미륵세존이 석조미륵불의좌상이 맞다면, 승려 生義의 불교 신앙이 불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자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신라 승려가 선관 수행을 목적으로 석조미륵불의좌상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조미륵불의좌상은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삼화령 미륵세존이라는 관념적인 틀 속에서 花郎과 미륵 신앙이라는 설화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불상이 언제부터 설화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불상 조성의 원래 목적은 선관 수행과 관련되었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Maitreya Buddha Statue from Jangchang'gok at Mt. Namsan in Gyeongju and *dhyana* Practice

Jae ho Bae *

The stone statue unearthed from Jangchang'gok valley has been regarded as the Maitreya image of Samhwaryeong Pass, which is mentioned in the *Samguk yusa* (三國遺事). It has also been linked to the belief of Maitreya's descent as foretold in *Mile xiasheng chengfo jing* (彌勒下生成佛經). The image is unique in two aspects. First, it is the only known example of a seated Buddha statue with two legs pendant to have been produced in the mid-seventh century Silla, when pensive bodhisattva images were prevalent as the image representing Maitreya. Second, the statue was enshrined in a stone chamber which resembled a tomb with a horizontal access. The stone chamber is also generally regarded as the prototypical example of cave temples in Silla.

Although a seated Buddha image with two legs pendant enshrined in a cave temple is rare in Silla, it was related to *dhyana* practice in contemporary China. The ultimate aim of those practicing *dhyana* early in China was to hear Maitreya preaching under a Dragon Flower Tree. The scriptural background to this, however, was not the *Mile xiasheng chengfo jing* but *Guan Mile pusa shangsheng doushuaitian jing*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This text is closely related to *dhyana* practice which includes the beliefs in both the ascent of Maitreya's Tushita heaven

* Yongin University

and the deity's descent to this world. It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Maitreya cult in Silla during the mid-seventh century. I believe that the Jangchang'gok Buddha image would have been related to Silla Buddhist monks who wished to listen to the preaching of Maitreya and achieve enlightenment by contemplating the image in the cave at Jangchang'gok.

The possibility of a link between the Jangchang'gok Buddha and *dhyana* practice is also demonstrated by the monk images in meditation pose in nearby Bulgok and Tapgok valleys. Such images are unique to this particular region and have not been found elsewhere in Silla territory. Just as the mid-seventh century Buddhist carvings at Mt. Namsam including the Jangchang'gok image were under stylistic influence of Buddhist art in Chang'an of Tang China,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features of *dhyana* practice found in Bulgok and Tapgok images bear some connection to China.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Jangchang'gok image was associated with a Silla *dhyana* monk who had been to study in Tang China during the mid-seventh century and seen there Buddha images of a similar type. One *dhyana* practitioner who fits this profile is the monk Jajang, who practiced *kugu guan* (枯骨觀, also known as *baigu guan* 白骨觀) before ordained and went to Chang'an to study *She Dasheng lun* (攝大乘論). Even if it was not Jajang, I believe that a monk with similar experience must have created the Maitreya statue in the cave at Jangchang'gok in order to contemplate Maitreya preaching under the Dragon Flower Tree, motivated by the *dhyana* practice stemming from *bujing guan* (不淨觀) and *baigu guan*, which are expounded in scriptures such as *Chanmi yaofa jing* (禪秘要法經), *She Dasheng lun*, and *Guan Mile pusa shangsheng doushuaitian jing*.

Meanwhile, if the Jangchang'gok statue is the Maitreya image of Samhwaryeong Pass recorded in the *Samguk yusa*, monk Saeng'ui's belief holds the ke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tatue's nature. However, we know nothing about Saeng'ui. Thus, I assume that a Silla monk who possessed similar experience with Jajang created the Jangchang'gok image for the purpose of practicing *dhyana*.

The Jangchanggok stone Buddha have been so far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Hwarang and the Maitreya cult, within a conceptual framework that holds the work to be the Maitreya statue of Samhwaryeong Pass mentioned in the *Samguk yusa*. We have no way of

knowing when the statue became the subject of this tale, and I posit that its original purpose was to be used in the practice of *dhyana*.